

등소평의 개혁과 중국식 사회주의의 미래*

歐 陽 新 宜

- | | |
|---------------------------------------|---|
| 一. 동·서방학자들의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탐구와 토론 | 四. 등소평식 개혁의 토론 및 그의 곤경 |
| 二. 사회주의와 발전이론간의 관계 | 五. 중국의 지방엘리트 이동으로 부터
살펴본 등소평식 개혁의 실질 |
| 三. 모택동 사상과 등소평의 개혁이
지닌 발전이론으로서의 지위 | 六. 결론:중국식 사회주의의 미래 |

사회주의에 대한 탐구와 토론에 있어서 가장 곤혹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定義문제이다. 담 그리피쓰(Dam Greffith)등은 200여종의 사회주의를 열거한 바 있다. 마르크스(Karl Marx)가 비평한 적이 있는 소위 “공상적 사회주의”도 여러 종류이다. 그리고, 당대에 사회주의국가라고 습관적으로 지칭되는 국가는 통상적으로 공산주의를 실시하는 국가이다. 본고가 논의하는 것도 역시 마르크스 레닌 사회주의 국가로 일컬어지는 모든 국가를 포괄할 수는 없다. 단지 목전에 겨우 존재하는 최대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공을 포괄할 뿐이다. 결국 본고는 전세계적 反사회주의의 물결속에서의 중공의 조정책략과 그의 앞날을 분석적이고도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토의 할 것이다.

一. 동·서방 학자들의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탐구와 토론

1989년에 동구 및 중국에서 있었던 몇 건의 대사건은 학술계에 사회주의

* 이 論文은 第12次 韓中學術會議 第1會議에서 主題發表한 것임.

의 미래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격렬히 유발시켰다. 사회주의운동의 해독을 깊이 받았던 국가, 예를 들어 중화민국과 한국만이 이 문제에 대하여 극도의 흥미를 느꼈던 것이 아니라, 서방의 정통 및 네오 마르크스주의 사상학계도 역시 커다란 흥미를 가졌다. 1990년 4월에 뉴욕시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학자의 연례회의(“Socialist Scholar's Conference”)는 바로 1989년의 세계적 반사회주의 풍조에 직면하여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였다. 거의 모든 서방의 저명 사회주의 학자들이 참가하였는데, 예를 들면, 종속이론의 비조인 앙드레 군더 프랑크(Andre Gunder Frank), 세계체계이론의 후에 등장한 수재인 크리스토퍼 체이스 던(Christopher Chase-Dunn), 사미르 아민(Samir Amin) 및 미국의 네오마르크스주의 석학인 폴스위지(Paul M. Sweezy), 미셸 버라워이(Michael Burawoy)등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아울러 이 회의에서 토론했던 결과를 <Monthly Review>(1990년 여름호) 및 <Socialist Review>(1990년 4~6월호)에 게재하였다. 끝으로 그들은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본회의 연구결과를 전문서적으로 출판하였다. 그 서명은 <사회주의의 미래(“The Future of Socialism”)>이다.

이들 서방학자들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래 200년간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하여 철저히 회고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예를 들어 다니엘 싱거(Daniel Singer)는 공산주의의 종말(End of Communism)이 역사적으로 필연이라고 인식하였다. 또다른 학자들, 예를 들면 앙드레 군더 프랑크(Andre Gunder Frak)와 크리스토퍼 체이스던(Christopher Chasedunn)은 세계적 자본체계의 통제와 장악하에서는 어떠한 단일 사회주의 국가도 자본주의 패권의 포위를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마리라 헬레나 알베스(Marira Helena Alves)는 천생적으로 모순이 내재하는 자본주의체계는 장차 스스로 붕괴될 것이라면서 브라질의 룰라(Lula)를 예로 들었다. 즉, 제철공장의 노동자이자 노동자회의 열렬한 활동가였던 룰라가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피선되었음을 예로 들면서 사회주의 부활의 낙

관성을 설명하였다. 해리 맥도프(Harry Magdoff) 및 폴 스위지는 사회주의 국가 쇠퇴의 내인설을 토론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는 내부적으로 민주축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 및 경제의 낙후를 가져온다고 인식하였다. 윌리엄 힌튼(William Hinton)은 중공의 천안문 사건을 탐구·토론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얻어내었다 : 새로운 엘리트 집단의 출현이 가져온 반민주적 권위체제는 중공의 사회주의를 반대방향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팻 데닌(Pat Denine)은 각국이 진행하고 있는 "Market Socialism"에로의 개혁을 크게 비평하면서, 그것은 기껏해서 논리성이 결여된 우둔한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하여, 쿠바 학자 페르만데스(Pablo Armando Fernandez)의 말을 인용하여 결론을 내렸다.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들은 즐거움에 빠져있다. 그들에 대하여 말하면, 세계는 이미 완전히 갖춰졌고, 역사도 이미 끝났다. 또한 이 데올기도 종결됐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가! 공산주의는 결코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상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단지 한조각의 빵으로 허기를 채우고 있는데, 부자가 자신의 애완견에게 한 덩어리의 고기조각을 주는 것을 목격한다면, 아직 기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다. 나는 마르크스의 저작을 읽어볼 필요도 없이, 빈자와 부자간의 거리가 얼마나 크게 차이나는지를 알고 있다." (Tabb, 1990:13)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미래에 대한 토론은 중국공산당이 스스로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1989년 이전에, 중국공산당이 등소평식 개혁을 위하여 제출했던 바의 각종 이론기초, 즉 예를 들어,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주의 초급단계" 및 조자양 통치 말기의 "신권위주의론" 등은 모두 사회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출로를 찾는 이론인 것이다. 1989년의 6.4 천안문 사건 이후, 각계의 사상을 통일하기 위하여 당대 사조잡지사는 "사회주의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강좌"라는 논문집을 편찬했다. 그 속에는 위엔무(袁木)이하,

인민일보사, 중앙당교, 사회과학원, 인민대학, 중공중앙선전부 등 각계가 사회주의를 변호하기 위하여 쓴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은 당연히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며, 이는 세계역사발전의 대세가 나아가는 바이다” 등의 논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론은 이론이고 실재는 실재이다. 중국에서의 사회주의의 발전 및 미래의 향방은 마땅히 중국의 현실정치에서 탐구되고 토론되어야 한다.

중국에서의 사회주의의 발전에 관하여 간여우란(甘友蘭) 선생의 시각에 근거하면, 신해혁명 이후 손문 선생의 삼민주의에서 연유되어 국민당과 공산당 양당의 세력의 소멸과 확장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기치는 바로 삼민주의중의 민주주의가 모택동이 주장했던 신민주주의로 변하였다. 국공 내전 전에 발표된 신민주주의론은 원래 중국공산당 혁명단계를 손문선생의 자산계급 민주혁명과 구별짓기 위한 것이었다. 문화대혁명기에 이르러 그것은 최고조에 도달했는데, 흡사 전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표지가 된 듯 하였다. 소련에서는 흐르시초프의 스탈린 비판때문에 중국 공산당에 의하여 정통사회주의가 아닌 수정주의라고 비판당하였다. 간략히 말하면, 소련은 수정주의라고 비판당했다. 신민주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것과 전통적 혹은 유토피아식 사회주의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의를 잠시 보류하자. (모택동식 사회주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Martin King White의 해설서를 참고 바람). 그러나, 그것이 중국 공산당 및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총표지적 지위를 가졌었다는 것은 확실히 그 시대적 의의를 갖는다. 신민주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계급투쟁이다. 모택동의 일관된 주장은 “절대로 계급투쟁을 잊지마라, 계급투쟁을 버리로 삼아라, 버리를 쳐들면 그물코가 벌어진다. (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삼아, 기본고리를 틀어쥐면 부차적인 것은 잇달아 풀리게 된다 : 역주)”

계급투쟁에서 출발한 사회주의는 일국내의 계급혁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세계적 범위의 세계혁명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1960년대 중국공산당이 문혁시기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제3세계 국가들에

게 보편적으로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가에 대한 원인이다. 본래, 일국가기전 세계이전간을 막론하고, 혁명 혹은 개혁이라는 이 많은 주장과 이론은 모두 국가발전의 이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발전이론의 범주 내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회주의 이론이 그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론의 범주 내에서, 일국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의 세계 혁명주장은 모두 원점을 찾을 수 있다.

二. 사회주의와 발전이론간의 관계

제3세계 국가들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모택동식의 사회주의는 그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야누스(Andrew Janos)는 국가 발전에 대한 이론들을 매우 훌륭하게 정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 발전의 동인(사회분화, 경제적 축적 혹은 역사적 우연)과 발전의 방향(직선적, 도약적, 나선적 혹은 분지적)이라는 두가지 분면에 기반해서, 모든 국가발전이론은 12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Janos, 1986:60). 사회주의의 지위에 이르러서도, 일국의 것이든 세계적인 것이든 막론하고, 또한 개혁적이든 혁명적이든 간에 이 틀 속에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스토우(W.Rostow)의 경제 5단계론은 마르크스의 사회 5단계론의 복제판이며, 립셋(Lipset)의 정치사회학은 곧 도약식 사회주의 개혁론의 전형이다. 거셴크론(Gerschenkron), 도이처(Deutscher), 하일브로너(Heilbroner), 드슈바이니츠(deSchweinitz) 및 나선적 발전 주장 등은 일국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이론적 기초라고 해석할 수 있다.

1980년대 이래 중남미 국가에서 성행한 중속이론과 세계체제이론은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의 제국주의론 및 세계 혁명론의 복제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많은 국가 발전의 이론 범주 중에서 1970년대에 제3세계 국가들이 모택동식의 사회주의, 즉 제국투쟁으로 버리를 삼는 사회주의 세계혁명을 선호하였던 이유는 제3세계 국가들이 처했던 세계경제에서의 주변부적

지위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제3세계 특히 중남미 국가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산업구조와 금융자금의 종속관계 때문에, 제충화된 세계경제 내에서의 주변부 지위를 벗어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이 지체 되기에 다다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국가 단위가 아닌 전세계를 단위로 하는 무산계급화의 과정중에 이들 제3세계국가의 노동자들은 세계경제체제의 최주변부적 지위에 처해있기 때문에, 장차 마치 엥겔스가 묘사하였던 영국 산업노동자와 똑같은 비참한 운명에 빠져든다. 이러한 종속관계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페루의 대통령이 공공연히 채택하였던 외채불승인 조치(엥겔스가 말했던 자산계급의 법적권리를 불승인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던가, 아니면 바로 북한이 취했던 자립(Autarky) 즉, 세계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와 왕래를 하지 않는 단절조치(de-linking)를 취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불승인이건 혹은 단절조치이건 간에 그 어느것도 결코 제3세계 국가발전의 진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페루이건 북한이건 혹은 모택동식 사회주의의 조국 중공이건 간에 그들은 모두 경제발전의 영역내에서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으며, 그 상황이 자본주의체제의 질곡중에 있는 기타 제3세계 국가, 예를 들어 중화민국, 남한, 싱가포르, 홍콩 등의 신흥공업화 국가보다도 더 심각하다.

한편으로는 외재적 비교인소에 기반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히 문화대혁명 후의 또 다른 초흔비를 세우기 위하여 등소평은 복권된 이후, 모택동의 계급투쟁식 사회주의에 대하여 일대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변화와 개정의 이론은 스탈린시대의 일국 사회주의로 소급될 수 있다. 일국 사회주의 이론은 원래 제국주의적 국제정치의 환경압박 하에서 소련이 일국 독재(전정) 기제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시켜낸 국가론이다. 그 연원은 레닌주의에 대한 스탈린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Stalin, 레닌주의의 기초). 그것의 대의를 말하면, 예전에는 혁명의 일국가내에서의 승리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반드시 세계의 무산계급이 연합하여 동시적인 혁명이라야만이 된다], 현재, 필수적으로 이 승리

[사회주의가 일국가내에서 성공을 획득하다]를 출발점으로 삼아 ... 일체의 모든 무산계급으로 하여금 개별국가내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기도 하다(董譯, Niemeyer, 1979 : 166).

일국 사회주의의 주장은 마르크스주의중 전세계의 무산계급이 연합하여 함께 혁명하여야만 한다는 주장을 개변시켰으며, 전후의 사회주의국가의 각각성립이 이론적 근거를 가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술계에서는 더욱이 세계경제체제가 동시에 계층화된다는 세계체제이론을 주장하는 것과 일개국가가 스스로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제국주의의 억압과 착취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종속이론가 프랑크(1983년 초기사상)의 주장이 서로 제갈길을 가도록 만들었다. 세계체제이론은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레닌의 제국주의론 이후 가장 대표성을 갖는 세계경제체제 극화론(Chiot, 1982)이다. 현재, 세계체제이론의 창시자인 월러스타인(Wallerstein)은 화란에서 자본주의체제적 세계경기순환의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종속이론은 1970년 이래로 중남미 국가에서 가장 현학이라고 생각되어 인기를 끌고있는 국가[불]발전이론이다.

三. 모택동 사상과 등소평의 개혁이 지닌 발전이론으로서의 지위

등소평식 사회주의가 채택한 일국사회주의의 함의는 등소평이 동구 방문객에게 대답한 담화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다 : 각국은 각국대로의 갈지 않은 상황을 갖는다. 각국은 마땅히 자신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 중국의 상황이 반드시 동구의 상황에 적응한다고는 할 수 없다. 말을 바꾸면, 중국이 걷는 길은 중국적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이며, 이는 중국 일국가의 것이지 전세계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중국적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인가? 등소평은 11기 3중전회 이후 다음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하나의 중심과 두개의 기본점”. 즉, 생산력을 중심으로 삼고 개혁, 대외개방과 4개 전지 사항을 두 개의 기본점으로 삼는다. 조자양은 중국 공산당 제

13기 대표대회의 보고를 통해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을 제출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사회의 근본 임무는 생산력의 발전임을 강조하였다.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은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삼는 모택동식 사회주의와 다음과 같은 커다란 차이점을 갖는다 : 첫째, 모택동은 생산관계의 조화(?) 즉,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삼지만, 등소평은 생산력으로써 중심을 삼는다. 둘째, 모택동식은 세계혁명이어서 혁명의 수출을 호소하지만, 등소평식은 중국의 특색을 강조하여 일국 사회주의의 도로를 걷는다. 곧 발전이론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모택동식이 추구하는 것은 세계체계의 도로이지만, 등소평식이 걷는 것은 종속이론의 도로이다. 그러나, 등소평식의 중국적 특색을 지닌, 마치 돌맹이를 더듬어 밟아가면서 물을 건너는 식의 탄력있는 책략은 세계혁명식의 전통적 마르크스 레닌 사회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합리적 해석을 가능케 하지만, 결과는 도리어 자기모순의 질곡에 빠져버린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중점이자 강조점은 전술했던 바와 같이 생산력이 지 생산관계가 아니다. 등소평식 사회주의자들은 다음처럼 생각한다. 발전의 단계를 앞으로 밀고 나가기만 한다면, 비록 약간의 체면을 깎인다 하더라도, 즉, 소위 “힘들게 노력해온 40여년이 일순간에 해방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만일 이로 인해 생산력 강화이론이 합법성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모택동식의 사회주의가 강조하는 생산관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배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병줄을 잃는 대신에 장수를 보호하는 좋은 이론이라고 치부한다. 그러나, 풍자적인 것은 초급단계론이 야노스가 발전이론을 분류하면서 전술하였던 엄격한 직선 발전이론의 범주에 귀착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바로 마르크스와 로스토우 등이 사회발전단계에 대하여 가졌던 이론적 시각 즉, 비교적 낮은 단계에서 일정한 발전단계를 뛰어넘어 더 높은 발전단계로 진입할 수는 없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5단계 사회구분법에 비추어볼 때, 생산력이 아직 발달되기 전의 자본주의 단계는 결국 취소할 수도 없고 아울러 인간의 의지로써 이전시킬

수도 없는 필요단계이다.(쑤샤오즈(蘇紹智)도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다.)

四. 등소평식 개혁의 토론 및 그의 곤경

등소평식 사회주의의 또 다른 중점은 개혁·대의개방과 4항견지이다. 대외개방이 가리키는 것은 시장경제이다. 그것은 바로 세계체제론자와 종속이론가들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대하여 가졌던 비판적 정책을 내던지고, 전세계 자본주의체제와 융합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조자양 시대에 제기되었던 세계체제의 대순환과 국내체제의 소순환설은 바로 이러한 관점의 가장 훌륭한 각주이다. 사회주의체제의 시장경제에 관하여 그것이 적당한 문제인지의 여부는 보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분분하다. Pat Denine이 Market Socialism에 대하여 크게 논박하여 말하기를, 그 이론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 하잘 것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Tabb, 1990:11). 중공은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를 상호 융합시키기 위하여 부득불 다종의 경제체제를 병행시키는 설을 제기하였다.

등소평식 사회주의의 제3항 내용은 4항 견지인데,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국가경제발전의 정치적 조건이다. 이 점에 관하여 중공학계는 통상적으로 등소평의 정치개혁을 이용하여 말한다. 등소평의 개혁은 또한 “신장정”, “2차혁명”적 이라고 불리워진다.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있다. 예를 들면, Harding은 첫째, Political relaxation, 둘째, Intellectual revitalization, 셋째, Economic readjustment, 넷째, Economic reform, 다섯째, Organizational restructure, 여섯째, International reorientation(Harding, 1984:3)으로 규정한다. 또 다른 학자는 관료체제 모델 접근법을 이용하여 당·정 분리, 권력하방, 간부의 4화등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한다(Lee, 1984:217). 그리고 합법성을 내세우는 학자들은 등소평 개혁의 목적은 정치안정을 추구함으로써 문혁이래 세가지 믿음에 대한 위기가 조성시킨 정권의 합법성을 되찾아오는 것이다. 중공 자신의

설명에 근거하면, 등소평의 개혁은 대체로 다음을 포괄한다. 첫째, 당·정 분리 둘째, 권력하방 셋째, 정부기구의 개혁 넷째, 간부인사제도의 개혁 다섯째, 사회협상대화제도의 건립 여섯째, 사회주의 민주제도의 완비 일곱째, 사회주의 법제건설의 강화이다. 그러나, 4항건의의 내용을 만일 조자양의 말을 빌어 이야기 하면, “바로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이며, 기타의 부분은 제기하지 않거나 조금만 제기해도 된다. 왜냐하면, 무엇이 사회주의의 길인지 현재는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민일보, 1990:48)

학계 혹은 정계가 등소평의 개혁에 대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는 말할 것 없이, 정치사회학자 립셋의 “일반상황”과 왈더 (Andrew Walder)의 “중국적 상황”이라는 견해에 근거하면, 경제발전의 정치적 조건은 항상 정치의 효능과 정치의 합법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Lipset, 1985) 또 중국의 상황에서 살펴보면, 정치의 합일과 정치자유화는 두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Walder, 1990). 등소평식의 사회주의 개혁은 바로 이 두가지 조건의 제약하에서 서로 얹혀있어 곤경을 자초한다.

우선 자유화를 말하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시민사회(Civic Society)와 정권(state)간의 화해관계이다. 중공자신의 술어를 빌어 이야기하면, 바로 당과 인민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었다. 즉, 당은 인민이익의 대표이고, 무산체급의 선봉대이며, 당의 영도는 사가 없는 것으로 인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기전 혹은 기타 사회주의 국가기전 간에, 국가는 전정(專政)의 도구인데, 그것은 일관되게 계급성을 갖는다. 서방의 네오마르크스주의자와 좌파학자, 예를 들어 C.Wright Mills, Miliband, Polantza, William Domhuff, Gramsci 등은 구조적, 도구적, 패권적 속성을 지닌 자본주의 정부의 엘리트에 대하여 매우 냉혹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질라스가 초기에 논한 신 계급부터 동구 및 소련의 관료체제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재차 강조하고 있

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간부가 주체로 된 신제급은 인민과 심하게 상호 대립하고 있다. 관료의 부패와 전제의 무능은 이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 국가관계를 심히 부식시키고 있다. 도대체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기제는 더욱 더 계급성을 가져야만 하는가 아니면 마땅히 점차적으로 쇠망해야 하는가? 이것은 중공을 어리둥절하여 어쩔줄 모르게 만들고 있다. 말을 바꿔 이야기 하면, 당의 영도는 도대체 강화해야 하는가 아니면 약화해야 하는가? 그리고, 각 당간은 합작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복종해야 하는 것인지,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방해야 하는 것인지 중공은 일정한 대책이 없다.

과거에 자유화에 대한 토론이 모택동식 사회주의의 곤경과 혼란을 조성하지 않았던 원인은 모택동식 사회주의가 결코 생산력을 핵심목표로 삼지 않고, 생산관계를 핵심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생산관계로부터 이끌어낸 국가목표는 경제생산이 아니라 계급진압이었다. 이 때문에 당의 영도는 명약관화한 도리였다. 등소평식 사회주의는 생산력을 주도로 삼는 국가목표 하에서 당의 좋고 나쁨은 필수적으로 경제생산을 지표로 한다. 하나의 부패된 당기구는 뚜렷이 생산지표의 장애가 되었다. 이 때문에 자유화는, 그것이 자산계급 자유화이건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 합작과 권력의 하방이건 간에, 비로소 등소평식 사회주의를 토론하는 중점이 될 수 있었고, 아울러 이것은 결핍될 수 없는 정치조건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생산력을 추구하는 당기구는 불가피하게 부패하게 되는가? 이것은 등소평식 정치개혁 조건중의 제2항 주제가 되었다. 이는 또한 중국공산당 내의 통합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유화를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중국 공산당 내에는 현저히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위 개혁파와 보수파 상호간의 알력은 '89년 6.4사건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본래 중국 공산당 내의 파벌 충돌과 권력투쟁은 줄곧 존재해왔다. 등소평식 개혁 10년이 있기 전에 있었던 파벌충돌은 범시파가 복권파에 대항하였던 표지이다. 화국봉은 당주석직을 계승한 이후 계속해서 모사상의 깃발을 높이

내세웠다. 이것은 바로 모택동식 계급투쟁의 사회주의 가치이다. 단지 생산관계만을 돌아볼 뿐 생산력은 돌보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당시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적응될 수 없었다. 덩소평은 문화대혁명의 착오를 올바르게 고쳐 세우고, 또 유린당한 민심을 정화하고 세가지 신념의 위기를 올바르게 돌려놓으며, 아울러 점차 합법성을 상실해가는 공산당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득불 생산력을 위주로 삼아 검은 고양이와 흰고양이를 가리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실용주의를 신정권과 인민간의 약법 3장의 정치적 담보조항으로 만들었다.

덩소평은 새로운 사회주의를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하나의 중심”을 사상노선으로 삼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여, 거기에는 사상노선과 대응하는 정치노선 및 조직노선, 즉 대외개방과 4항견지가 있어야만 개혁 성공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조직노선은 다시 당의 일치(단결)을 가장 긴박한 것으로 삼는다. 당내 단결의 방법은 첫째가 간부의 4화이고, 둘째는 권력의 하방이다. 덩소평식 사회주의의 사상노선이 이미 생산력발전이라는 하나의 중심위에서 자리잡고 있다. 그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은 개혁·대외개방 및 4항견지라는 두 가지의 기본점 위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생산력의 발양을 관찰시키기 위하여 덩소평 정권은 서기 2000년의 국민 생산총액을 두번 뒤엎는다는 정치구호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정치노선하에서 홍콩문제, 대만문제는 모두 오랜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의논할 수 있는 것이며, 일국 양체제의 시한도 또한 50년에 이르도록 변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이가 돈을 향해 눈길을 돌린다는 말은 인민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회현상적 속된 말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덩소평식 사회주의 정치노선을 충분히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조직노선은 덩소평식 개혁의 근본이자 덩소평정권의 생명줄이다. 간부의 4화이래 행해진 83년 당의 정돈과 권력하방에 이르러 행해진 중앙과 지방의 관계조정등은 모두 당의 영도를 보증하는 각종 수단이다. 모택동의

시대에서는 계급투쟁의 지도원칙하에 당·정·군, 군·간부·군중의 3결합이 그러한 지도원칙에 조응하는 조직노선이었으며, 모택동의 구두선은 줄곧 “군중으로부터 나와서, 군중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등소평의 시대에 이르러, 간부의 연소화, 지식화, 전문화, 혁명화가 생산력의 발양을 보증하는 것으로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이유를 위하여 당과 정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 정과 기업의 관계등은 모두 반드시 경제효율에 적응하도록 조정을 가하였다.

그러나 효율과 안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주지하는 바대로, 6.4전의 조자양은 더욱 높은 행정효율을 추구하기 위하여 신권위주의적 주장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당외인사와 다당합작제를 진행하고자 준비하였다. 그 목적은 구계급성분과 구분되면서도 민족주의 의식을 지닌 신과학기술관료집단을 배양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당외 인사와 합작을 준비하여 당외의 것으로써 당내의 제반문제를 규제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생산력에 힘쓰는 당이 역시 부패도 방지하는 안전판을 보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만약 신권위주의와 다당합작제도가 완전실시된 이후, 마치 일본, 페루, ... 및 대만등지에서 일찌기 출현한 적이 있는 중립적 과학기술관료를 반드시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또한 이로인해 일본처럼 자민당이 머리가 되는 1.5정당식 민주정체로 발전할 것인가를. 그러나, 등소평식 사회주의의 사상과 정치노선의 지도하에서는 조자양식의 조직노선 즉, 신권위주의와 다당합작제도가 바로 합리적 논리의 추론이었다. 이러한 합리적 논리의 추진은 보수파의 저항을 받게되어 6.4사건을 이끌어냈다.

보수파가 크게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자유화가 장차 공산당의 멸망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의 영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그들은 다음처럼 생각한다. 만일 당의 영도가 없다면, 모든 정치목표와 사상목표, 사회주의 자체를 포함한 모든 것이 장차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식의 사고는 6.4이후 관변이 6.4를 변호하기 위하여 쓴 글에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당의 영도의 핵심문제는 바로 다음에 있다 : 당과

국가의 영도권이 마르크스주의에 충실한 사람의 손아귀에 견고히 장악되어 있음을 보증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전략문제로써, 당과 국가의 흥망성쇠에 직접 관계된다”(史美術등, 1990:249).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밝혀두어야 할 것은,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차이점은 사상노선이 서로 다름에 있지 않으며, 또한 정치노선이 서로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조직노선이 서로 같지 않음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왜 6.4후, 개혁개방이 여전히 주요 정치경제정책이 되는지의 이유가 된다.

五. 중국의 지방엘리트 이동으로부터 살펴본 등소평식 개혁의 실질

6.4사건을 되짚어 보면, 우리는 조직노선의 쟁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다. 보수파는 과거 10년간 효율보다는 안정에 더 강한 주장을 펴왔다. 보수파의 계산에 따르면, 6.4사건중의 많은 우두머리 인물, 즉 “70%이상이 공산당원이었고, 또한 그중 다시 50%가 司局급 및 그에 상당하는 간부였으며, 그중 적지 않은 인물들이 조자양이 감싸주었고 또한 중용했던 인물이었다.”(見有林등, 1990:218) 이것은 중국공산당내에 자산계급 자유화의 경향을 지닌 엘리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상, 중공의 전체 간부집단을 놓고 볼 때 상술한 “동란분자”는 여전히 소수에 속하지만 이론계와 신문계에 속하는 인물의 수는 비교적 많고, 정계와 군계에 속하는 인물은 비교적 적다. 등소평식 개혁의 조직노선상의 실질을 가일층 탐구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필자의 박사논문중 이미 사용한 적이 있는 실증자료를 가지고 설명키로 한다.

1971년에서 1978년 사이와 1979년에서 1988년 사이, 모택동식 사회주의와 등소평식 사회주의는 성급 영도간부의 임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비교점을 제시한다. 등소평 시대에 지방조직을 놓고 말하면(당부, 성정부, 인민대표대회, 성군구, 정치협상회의의 모든 정·부책임자를 포괄하면, 총인원

N=5888명이다), 중앙은 비교적 크게 지방의 임면권을 갖는다(매월평균 3.5%); 등소평시대의 성급엘리트는 비교적 긴 임기를 갖는다(45 vs. 52개월), 아울러 규율성이 비교적 높다(1/110 vs. 1/96); 비교적 적은 부책임자가 있다(0.20 vs. 0.22) (Table 1 참조). Table 2는 지방지도자 개인의 이동상황을 나타낸다:(각 성·당부 제1인자를 포괄하면, 총인원 N = 119명이다) 등소평시대의 지방책임자는 겸직의 차가 비교적 적다(3.33 vs. 2.32); 비교적 많은 지방책임자가 하급직으로 부터 승진해온 인물이다(33% vs. 55%); 군인이 정치를 간섭하는 현상이 명확히 감소하였으며, 숙정된 인원수도 비교적 적다(Demotion rate: 40.22%) (Table 2를 참조).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등소평시대의 조직책략은 지방에서 확실히 비교적 안정된 결과를 획득하였다. 과거 성급지도자의 임면에 나타난 것을 보면, 등소평 개혁의 최대성공은 경제상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상 특히 인사의 안정에 있다. 이러한 발견은 서방학자, 예를 들어 Harding 및 Lee가 중공정치의 다원화와 자유화에 대하여 가졌던 억측을 뒤엎는 것이다; 일본학자 Tokuda는 “단결안정”적 시각을 지지하였다. 모택동의 시

Table 1
Macro level political stability

STABILITY INDICATORS	MAO'S PERIOD (1971~1978)	POST-MAO (1979~1988)
Turnover Rate *	0.031	0.035
Index of Instability	110	96
Average length of service	45	52
Positional Interlocking (CORNER)	1.435	1.302
Ratio of heads /non heads (SAND)	0.20	0.22
Index of Synchronism	0.00	0.17
	(N=717)	(N=5081)

Table 2
Micro level political stability

STABILITY INDICATORS	MAO'S PERIOD (1971~1978)	POST-MAO (1979~1988)
POSITION HOLDING	3.33 (N=30)	2.32 (N=89)
INSIDER (promoted from local lower rank)	33% (N=30)	55% (N=89)
DIRECTION OF MOBILITY		
promoted	18.52%	23.91%
lateral transfer	25.93%	35.87%
Demoted	55.56% (N=30)	40.22% (N=89)
MILITARY INTERFERENCE		
Military Career Origin	66.67%	8.70%
Military Education	14.81% (N=30)	1.09% (N=89)
Military Activity	6.42% (N=717)	7.12% (N=5081)

Source: Hsin-yi Ou-yang, Transformation of the Provincial Elite in Post-Mao China: State Function, Elite Recruitment and Political Stability, a Ph. D. Dissertation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0: 137~138.

대와 서로 비교하면, 등소평의 정국은 확실히 비교적 안정되었다. 그러나, 도메스(Jürgen Domes)가 1985년 중공을 관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지극히 권력적인 정체(즉, 중공처럼)가 카리스마적 통치로부터 전제적 그리고 제도화된 통치로의 발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등소평의 개혁이 중공의 정치구조로 하여금 제도화된 통치의 초기모델을 갖게 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인데, 그것이 일당 전제적 제도화로부터 다원정체적 제도

화로 나아가게 될지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다.

六. 결론 : 중국식 사회주의의 미래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지니게 되었다: 모택 동시대가 끝난 이래로 중국의 사회주의는 동소평의 개혁지도하에 세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첫째, 하나의 중심을 명목으로 한다. 그리하여 평등을 추구하던 것에서 즉, 생산관계를 중시하는 계급투쟁론으로부터 발전을 추구하는 즉, 생산력을 중시하는 초급단계론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대외개방을 명목으로 한다. 그리하여 전세계 무산계급이 함께 혁명하여야 한다는 세계사회주의운동으로부터 일국가적, 중국적 특색을 지닌 대외 개방적인 즉,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가입함과 아울러 시장이 길잡이가 되는 시장사회주의로 전환되었다; 셋째, 4항전지를 명목으로 한다. 그리하여 군 · 간부 · 군중이 위주가 되던 조직노선으로 부터 기업 및 당간부가 위주로 되는 신관료체제노선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위의 관점을 잘라서 살펴보면, 이상의 변화는 모두 낙후된 국가의 발전책략 중에서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 생산력을 발전시킴으로써 맨앞에 있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은 고전 현대화론자, 예를 들어 Spencer, Durkheim의 기본주장이다. 그리고, 낙후국가가 대외개방을 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개념도 역시 19세기 후기의 신자유주의에로 소급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鄧의 初階論은 理論而 根據를 歷史的으로 지니고 있다. 전고한 행정체제에 다다름으로써 발전을 획득할 수 있다는 주장은 더욱더 Weber, Riggs, Huntington이래 제3세계 국가가 가장 흥미를 갖고 논하는 이론이 되었다. 이러한 책략의 유효성과 적용성에 대하여 이론이 분분하긴 하나, 아마도 수렴이론가(Convergency Theorists) 예를 들어 Lenner, Apter, Black등이 예언했던 바와 같이 자본주의국가가이건 사회주의 국가이건, 또 어떤 책략을 취하든 관계 없이 최후에는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 하나가 될 것이

다(Janos, 1986:60). 이상의 발전책략에 대한 중공의 선택은 이미 수렴이론가들의 말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아니 좀더 적실하게 이야기해서 공산주의국가의 발전이 성공된 사례를 결코 본 적이 없다. 자본주의의 발전이 오늘에 이르러, 낙후국가가 진정으로 앞선 국가를 따라잡았던 것은 단지 지난 세기의 일본과 금세기의 아시아 4개 신흥공업화국가 뿐이다. 우리들은 위에서 서술한 성공국가가 실행했던 것이 무슨 주의인가 판별하기가 몹시 어렵다. 그러나, 오히려 대담하게 말하면, 절대로 공산주의식의 사회주의는 아니다. 이 국가들은 지금 중국식 사회주의도 채택하고 있는 생산력과 대외개방 및 기술관료 책략을 많이 채택하였다. 그러나 약간 중공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Andrew Walder(Walder, 1990)가 중공의 6.4사건에 대하여 행했던 심각한 관찰인데, 바로 엘리트의 통합과 정치적 자유간에는 마땅히 하나의 균형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고개를 돌려 등소평의 개혁10여년을 살펴보면, 엘리트를 통합시키고 정치를 안정시킨데에는 대체로 공헌이 있는 것 이외에, 중국식 사회주의가 경제면에서 도대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점은 실제로 답변하기는 몹시 힘들다. 잔혹한 6.4사건은 도리어 시민사회가 정권에 대하여 가졌던 신임을 회생시켰다. 많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등소평이 모택동식의 사회주의를 등소평식의 사회주의로 개변시키고자 가졌던 처음의 다짐은 바로 민의에 순응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실추된 정권의 합법성을 만회하였다(Tewis, 1984). 동구와 소련에 있어서 사회주의가 어지러이 포기되고 멸절되고 있는 오늘날, 중국의 민의의 향배가 장차 중공식 사회주의 미래의 가장 훌륭한 지표가 될 것이다.

參考書目

侯立朝 1979 社會主義論, 台北, 博學出版社, 頁5.

- 甘友蘭 1979 “中國社會主義運動” 周陽山, 楊肅獻 編, 近代中國思想人物論 社會主義, 頁20.
- 史達林 “列寧主義的基礎”, 列寧主義問題, p.44~45.
- 人民日報社論 1990 “只有社會主義才能發展中國” 聞迪等著, 社會主義能多句救中國 北京, 華藝出版社, p.8.
- 匪情年報 1983~84, p.3~48.
- 史美衍 1990 “黨的領導和黨的建設”, 袁木等主講, 社會主義若干問題講座, 紅旗出版社, p.249.
- 有林, 陳展操超, 顧民生, 王茂華 1990 “我國社會主義新時期階級鬥爭的若干問題”, 袁木等主講, 社會主義若干問題講座, 紅旗出版社, p.204.
- Chase-Dunn, Christopher K (ed.) 1982 *Socialist States in the World-System*.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Inc.
- Chirot, Daniel & Thomas D. Hall 1982 *World-System Theory*, *Annual Review Social*, 1982. 8:81~106.
- Deng, Xiaoping 1983 “Reform of the Party and State Leadership System,” August 18, 1980. Deng Xiaoping Wenxuan, pp.280~302. Beijing: People's Publishing House, 1983.
- Djilas, Milovan 1957 *The New Class* New York: Prager.
- Domes, Jürgen 1985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PRC: A Time of Transition*. London: Westview Press.
- Domhoff, G. William 1979 *The Power That Be: State and Ruling Class in Corporate America* New York: Random House.
- Domhoff, G. William 1984 *Who Rules America Now? A View for the 80'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Dye, Thomas 1979 *Who's Running America? The Carter Yea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Frank, Andre Gunder 1983 “Global Crisis and Transformation” in

- Development and Change (Sage, London), Vol. 14, pp.323~346.
- Harding, Harry 1981 *Organizing China, the Problem of Bureaucracy 1949~1976*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ding, Harry 1984 "Reform in China: A Mid-course Assessment,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III, No.2, Summer 1984, pp.3~25.
- Harding, Harry 1946~1987 *China's Second Revolution : Reform After Mao*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Harding, Harry 1990 "The Development of China Studies in the U. S." (Chinese) *The Chinese Intellectual*, Vol.5, No.2, Winter 1990.
- Janos, Andrew C. 1986 *Politics and Paradigms: Changing theories of Change in Social Sciences*, Stanford University Press, p.6.
- Lee, Hong-Yung 1984 "Evaluation of China's Bureaucratic Reforms" *Annals-of-the-Academy-of-Political-and-Social-Science*; 1984, 476, Nov, 34~47.
- Lee, James Kuo-hsiung 1987 "An Assessment of Teng's Bureaucratic Reform, 1979~1984" in Shaw Yu-ming(ed.) *Reform and Revolution in Twentieth Century China*, pp.:246~262, Taipei: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National Chenchi University.
- Lee, Hung-yang 1990 *The Changing Crdre System in Socialist China:From Revolutionary Crdres to Bureaucratic Technocra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pset, Seymour Martin 1981 "Political Man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Lipset, Seymour Martin 1985 *Consensus and Conflict: Essays in Political Sociology*. New Jersey: Transaction Books.
- Neimeyer, Gerhart 1966 *The Communist Ideology*, p.166.
- Scocpol, Theda 1973 "A Critical Review of Barrington Moore's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Politics and Society*. 4:1~34.
- 1984 "Bringing the State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in *Bringing the State Back In*, edited by Peter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uth China Morning Post, 1989 "China's Second Revolution", Editorial, May 27.
- Tabb, William K. 1990 *The Future of Socialism: Perspectives from the Lef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Taraki, Bariman 1978 "Institutionalization and Bureaucracy in China: The Relevance of the Maoist Experience"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1978, 13, 1, spring, 100~124.
- Teiwes, Frederick C. 1984 *Leadership, Legitimacy, and Conflict In China: From a Charismatic Mao to the Politics of Succession* Armonk, N.Y. M.E. Sharpe
- Tokuda, Noriyuki 1984 "The socialist System Under Transformation in Post-Mao China: Uncertain Explorations Toward Integr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Spring 1984 Vol.3, No.1 pp. 17~29
- Walder, Andrew G. 1990 "The political Sociology of the Beijing upheaval of 1989", *the Chinese Intellectual*, 1990 spring, No.

19:9.

Whyte, Martin King, Ezra F. Vogel & William L. Parish 1977
"Social Structure of World Region: Mainland China", in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77,3: 179~207.